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떨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꺾꺾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겅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

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B]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며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A]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3.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읽기 전 활동**

위 작품이 창작될 무렵에는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해 계몽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연애와 관련된 모습과, ‘형식’이란 인물이 연애를 통해 어떤 일을 겪는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어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떨거니 섰다.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

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 노보세했네 :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홍분했네’의 뜻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먼저 누가 등장하는지부터 파악합니다. ‘박영채’, ‘이형식’, ‘김선형’이 등장합니다. ‘형식’은 원래 ‘영채’랑 혼인을 하고자 했지만, ‘영채’가 죽은 줄 알고 ‘선형’과 약혼합니다. 그렇게 ‘선형’과 미국으로 가는데 정말 우연히 죽은 줄 알았던 ‘영채’를 다시 만나게 되고 ‘형식’은 충격에 빠집니다.

‘영채’를 다시 만난 ‘형식’은 ‘선형’과의 약혼을 파하고 ‘영채’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채’가 자신과의 혼인을 바라지 않는다면 혼인하지 않고라도 지내겠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본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형식’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 그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하는 ‘형식’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형식’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팔에 붉은 형걸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형식’은 자기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선형’을 사랑하는지, ‘영채’를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분명 앞 내용만을 보면 ‘형식’은 ‘영채’를 더 사랑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두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형식'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고,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며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형식'은 사랑을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에게 있어 뜻깊고 거룩한 일이고, 정신적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는 유치하고 내용과 근거가 빈약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고, 사랑을 의논할 때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어린아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나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 또한 어린아이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선형'과 '영채'와의 사랑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는 '형식'의 모습입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끌고 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기>에서 '형식'은 사랑에 관한 갈등을 겪으면서 스스

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학생들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외람된 일임을 깨닫고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인물의 심리에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형식'이란 인물이 사랑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꽤나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B]에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A]에서 형식은 선형과 영채 중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선형에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고 근거도 박약하고 내용도 빈약한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A] 부분이 사랑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사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두 부분 모두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 ㉔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 ㉕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① ㉔: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형식은 영채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것이냐며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② ㉕: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형식의 말을 들은 이 인물은 형식에게 정신이 산란하고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㉕: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형식이 선형과의 약혼을 파하고 영채와 혼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㉔: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택하는 것은 곧 선형과 혼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⑤ ㉕: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영채는 동경으로 유학가고 형식은 선형과 혼인해 미국으로 가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편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㉕**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어른은 타락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위 작품에서 사회적 약자와 권력자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새로운 풍습에 적응, 기존 풍습에 얽매임과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 유연히 대응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 형식은 자신이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린이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른인 체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린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어른은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무언가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몸으로 익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이는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자,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보 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형식은 선형과 영채 중 누구와 혼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연애에 기초한 혼인이 형상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형식은 선형과 영채 중 누구를 사랑하는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보기>에서 말한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근대적 삶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

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형식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동포에 대해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성이란 사람들을 깨우치는 성질을 말하는데, 형식은 사랑이 자기 동포에 대한 정신적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계몽성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형식은 선형에 대한 사랑이 유치한 것이고 근거도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의 자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기>에서도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형식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자아의 자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형식은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해 깨닫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